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2025년 물관리 현장설명회 개최

김상준기자 | 승인 2025.05.01 17:10 | 11면

본격적인 영농기 안전보건교육·물절약 홍보·가뭄대비 영농관리 교육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지난달 24일 회의실에서 '2025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합천군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지사장 김동원)는 회의실에서 수리시설감시원, 운영대의원, 지역농업인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24일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영농급수전 지역농업인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농어촌공사의 물관리 계획을 알리고, 현장 소리를 청취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용수절약 등 농업용수관리의 중요성과 영

농기를 맞아,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보건교육, 가뭄대비 영농관리, 영농애로사항 청취 및 공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수렴했다.

또한 30일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 따르면 현재 공사관리 저수지 85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82.1%로 평년대비 105.8%로 예년에 비해 올해 영농급수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한편 김동원 지사장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농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수리시설감시원들에게 감사드린 다며, 공사는 농업인들에게 귀 기울이며 효율적인 용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기자